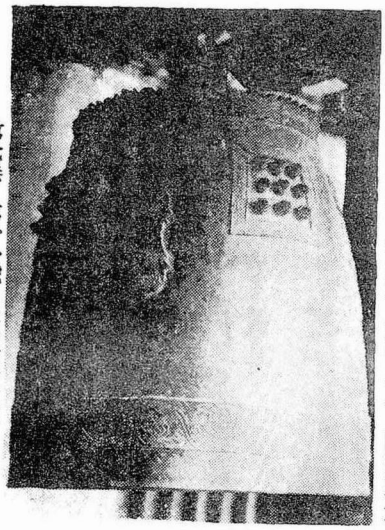
廣興寺銅鍾

秦弘燮

安東郡 西後面 者品洞 廣興寺에는 寶物로 指定된 粟紙金泥와 白紙墨書의 寫經 各 二冊(現在 安東郡敎育廳에서 保管)이 있어 널리 알려진 바 있으나 今夏 調査에 依하여 石塔石造佛座臺、禁口、銅鐘 等이 確認되었으나 그 中 銅鐘이 가장 注目되었다。

銘文에 依하여 李朝時代의 製作임이 分明하나 各部 樣式이 古式을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形態도 李朝鐘으로서는 드물게 아름답다。

頂上에는 龍鈕와 音筒을 두고 鐘肩에는 方形區間을 만들고 그 안에 거의 方形에 가까운 蓮瓣을 하나씩 넣고 그 위에 如意頭文을 세워서 周廻하였다。乳廓은 肩部에서 遊離되어 四處에 配置하였고 廓周에는 平行雙線으로 簡單한 唐草文을 陽刻하였고 廓內에 突起된 連蕾로 表現된 九乳가 있다。鐘身에는 밑에 空間을 남기고 乳廓과 乳廓 사이에 各各 菩薩一軀씩을 陽刻하였다。菩薩은 立像으로 圓形頭光、寶冠、衣紋 等 모두 陽線으로 表現하였는데 手法이 매우 能熟하며 姿勢도 整齊되었다。鐘口에서 亦是 遊離되어 陽鑄된 雙線唐草文帶가 있는 바 가지에서는 滿開된 菊花形 花朶와 半開의 蓮花가 派生되어 交替로 配置되었다。以上 樣式이 基本形態에 있어서 高麗鐘의 樣式을 充實히 따르고 彫刻 또한 洗練된 솜씨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銘文에 依하여 그 製作이 「萬曆元年」(李朝 宣祖六年、西紀一五七三年)임을 알 수 있어 韓國 梵鐘樣式變遷을 考察함에 한 座標가 될 수 있는 重要한 一例라고 생각된다。銘文은 乳廓과 菩薩像 사이에 點線으로 되어 있어 難讀이었으나 現場에서 判讀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萬曆元年癸酉四月初 日
□□山□□寺一百四十斤
入大鐘十五斤入□鑄成記
大□□廣□ 大主□□□
□□□□□ 大主□金西主
大主崔□□ 施主□□□□
道雄? 汉月 □□ □□
□先 仅嵩 印□ □□
鑄匠金慈山□□
□□ □□ □□
別座士印比丘
□□□惠□□
大化主□□比丘

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全高 六〇·五cm 身高 四四。五cm 肩幅 三〇cm 口徑 四一cm
厚 二·五cm

襄陽郡 黃耳里 塔·像

鄭永鎬

江原道 襄陽郡 西面 黃耳里 峴西國民學校앞(南方)六〇m되는 耕作地에 石佛坐像一軀와 石塔一基가 遺存하는데 이곳이 原位置인지는 알 수 없

으나 一帶의 田畓에 瓦片이 散亂하고 石築臺片들이 散在한 點으로 보아 寺址로 推定된다。筆者는 昨年 三月 十三日 이곳에서 別로 멀지 않는 禪林院址를 踏査할 때 이 遺物을 調査한 바 있는데 十二月에 再調①할 때는 洞民들과 國民學校의 好意로 校庭에 移安해 있었으나 各部材가 本位置에 놓이지 않고 順序가 뒤바뀌어 原形을 그릇치었음은 遺憾된 일이었다。이 곳 遺蹟에 關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四一頁「西面西林里」欄에 記錄② 이 若干 보일 뿐이다。

一、石佛坐像

八角臺座上에 毘盧舍那佛을 奉安하였는데 頭部는 缺損되고 兩手에 磨損이 甚하다。목에는 三道가 뚜렷하고 通肩의 法衣는 臍前에서 圓弧를 그리었고 양무릎에서 앞자락이 흘러 내렸으며 背面에는 어깨로부터 주름이 잡혀 流麗하게 全面에 흘렀다。手印은 正型에서 벗어난 佛國寺極樂殿內 毘盧舍那佛의 形式을 取하였으며 光背는 없다。臺座는 數枚石으로 된 方形의 地臺위에 四枚石으로 짜인 下臺를 놓았는데 側面에는 八面에 眼象을 陰刻하고 그 안에 唐獅子를 陽刻하였다。伏蓮臺石은 破損된 部分이 많고 蓮華紋도 磨損이 甚하여 樣式을 알기가 힘든데 各面마다의 若干씩 남은 部分을 綜合檢討해 보면 十六瓣의 伏蓮이 돌리고 各瓣內는 다시 花紋彫飾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中臺石(竿石)은 各面에 隅柱가 表現되어 있으며 一面에 裝飾的인 香爐를 彫刻한 것을 中心하여 各面에는 蓮華座上에 二條의 圓形頭光과 持物이 있는 菩薩坐像과 奏樂像을 浮彫하였다。上臺石은 現在 缺失되었으며 괴임石으로 보이는 一枚의 板石이 竿石위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높은 받침이 一段씩 刻出되었다 全體에서 注目되는 것은 下臺側面의 眼象과 獅子의 兩耳、足、尾部 等 寫實的인 表現으로서 竿石의 各彫刻의 樣式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되었다。實測値는(cm)……像高(現)一一〇 胸幅五八 肩幅八四 膝幅一二六 膝高三〇

下臺高 三二 蓮臺高 二五 中臺高三四 板石厚一三·五 中臺隅柱
下一邊長六五·六九 〃 上괴임長三九 〃 一邊長三四 板一邊長五·二 幅八·五
〃 下괴임長四三

中臺側面像高二〇이다。

二、三層石塔

石佛옆 낮은 밭둑에 基壇部가 埋沒되어 있었던 것인데 校庭으로 移建하면서 部材를 收拾하였으므로 地臺부터 위 露盤까지의 完形을 볼 수 있으며 묻혀 있었던 下基가 純白色이다。四枚石으로 된 方形의 地臺위에 一枚石의 下基를 놓고 上面一段의 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다。一石으로 된 上基에는 各面에 兩隅柱가 刻出되었을 뿐 擰柱가 없으며 甲石下面에는 高麗下代式의 斜形副緣이 있고 上面에 二段의 角形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初層과 二層의 塔身은 各 別造로서 兩隅柱의 表現이 있는데 二層塔身은 二層屋蓋와 同一石으로 되어 있다。初層과 二層屋蓋石의 받침은 四段씩이고 三層은 三段이며 三層屋蓋上面中央에는 方形의 擦柱孔이있고 그 위 露盤을 놓았다。各屋蓋의 落水面이 急傾이어서 鈍重感을 주고 있으나 轉角에 反轉이 있어서 輕快한 面도 있다。基壇甲石上面 四隅마다 合角진 것이라든가 副緣、其他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下代로 推定된다。實測値(cm)는 現全高 三一〇 初層身高 三三 二層身高 一六 三層身高 九·五 初層屋蓋長 七九 二層屋蓋長 六七 三層屋蓋長 五七이다。끝으로 이 調査와 禪林院址踏査時 案內役을 맡아 協助를 주신 峴西國民學校長 崔正圭先生께 感謝드린다。

註

① 三月에實態調査次 禪林院址에 갔을 때 이 곳을 거쳤으며 十二月에는 禪林院址의 諸遺物을 復元하게 되어再調의 機會가 있었다。禪林院址와 그 調査經緯에 對하여는 本誌第七卷第六號 拙稿 「禪林院址에 對하여」를 參照할 것임

② 現在 行政上 黃耳里라고하나 俗稱 「西林」이라고도 함으로 調査資料에서의 石佛石塔이 바로 이 遺物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考古美術 六一ㅅ

◎ 文化財委 第一分委 (十次)

十月 十九일 開催되었는 바 出席委員은 金庠基 金載元 李弘稙 金允基 金元龍